

중독자도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마약중독으로 고통 받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예방교육과 치료 재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마약전문중독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미비하고, 치료자 스스로 공격적인 환자화 싸워야 하는 소위 3D 업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자 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행 해 주는 이가 있으니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45세) 원장이다. 중독자 치료에 대해 그는 “치료자는 중독자의 옆에서 지켜봐주고 함께 길을 걸어가 주는 것”이라며 “여러 번 마약을 한다고 하여도 치료자는 해독하고 다독겨려주며 함께 손잡아 주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인천참사랑병원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약물 및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천 원장을 만나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 치료방법 ·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천영훈 원장

인천참사랑병원 원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주
인하대병원 정신과 외래교수
가천의대 길병원 정신과 외래교수
원광대학교 정신과 외래교수
대한정신약물학회 정회원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평생회원



Q. 많은 정신과 의사도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마약중독 전문의로서 느끼는 사명감이 있으시다면.

중독자와의 인연은 원광대학교 의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중 상당수가 강한 성격의 환자가 대부분이었고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다. 다시는 알코올, 약물 중독환자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군복무시절,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이들이 트랜스젠더와 조폭이었다. 그 후 2010년 교도소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마약중독자와 인연이 시작됐다. 그러다 보니 공격적인 사람에 대한 불안도가 덜했고 중독자에 대한 편견도 없었다. 공격적인 부분이 공포스럽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다. 마약중독전문 정신과 의사는 솔직히 3D 업종이지만 의외로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 의외로 마약중독자와 의사간의 소통인 ‘라포’가 잘 이뤄지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며 보람도 느끼게 된다. 또 그들에게서 인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다.

Q. 그동안 수많은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해 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환자의 치료사례와 마약중독 치료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마약중독은 치료가 다 되었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약 끊었다” “술 끊었다”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한다. “약을 끊고 있는 중”으로 치료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약물은 10년을 끊었다가도 다시 하고 싶고 할 수도 있다.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환자와 치료자가 함께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암을 극복했다고 하여 인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독환자가 회복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며 관대하게 바뀌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의사도 환자를 보고 배우는 부분이 많아진다.

중독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즉각성’이다. 즉각성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순간의 괴로움을 잊고 쾌락을 위해 그 이후에 것들을 잃어버린 채 즉각적인 반응에 매달리는 것이다. 회복한다는 것은 즉각성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있는 가치를 위해 괴로움과 유혹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때문에 중독을 이겨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치료자는 단지 중독자의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10번, 100번 마약을 한다고 하여도 치료자는 해독하고 다독거리주며 함께 손잡아 주는 일을 반복하며 도와 주는 것이다. 해답의 길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다.

Q. 중독 치료에 있어서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중독은 의학적으로 뇌의 병이다. 중독은 의지가 없어서, 가족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뇌의 질병인 것이다. 뇌의 보상계에서 영구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다. 가족을 생각한다면 다시 안해야 하지만 뇌가 이미 고장났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다. 가족은 중독자를 보는 마음 자체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 뇌의 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재발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중독자들은 욕하고 비난하면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우선이 된다. 환자 스스로 의지를 결심만 해서는 절대로 단약(斷藥)이 되지 않고 치료자, 가족 모두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치료에 임해야 해야 한다.

Q. 마약류 및 약물중독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의료인이 약물중독자를 보면 신고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고의 의무가 없어졌다. 법무부도 수용보다는 치료, 예방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자를 교도소에 보낸다 하여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에 가기 전 ‘치료조건부기소유예’ 제도가 있긴 하다. 이는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마약치료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거의 유일하다. 미국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활센터, 쉼터 등이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교도소를 보낸다. 교도소 안에서도 마약중독자는 일반 범죄자와 따로 분류하여 관리된다.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전국의 마약중독자 모두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교도소를 출소하고 난 이후에도 함께 삶을 공유하다 보니 다시 중독의 길로 빠지기가 쉽게 되는 것이다.

마약치료시스템은 투자의 문제가 가장 크다. 도박중독센터, 알콜상담센터는 현재 전국에 분포돼 있으며, 이들을 지원해 줄 재원도 있다. 그러나 마약중독자를 위한 치료시설은 거의 없으며,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그냥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중독분야에서 ‘마약’부분이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마약청정국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약물오남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시급히 체계적인 ‘마약치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Q. 청소년 약물오남용 사례 및 약물중독 환자가 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고 약물중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모두 사회 문제다. 어린 시절 마약을 단 한번이라도 하면 절대로 끊기 어려운 위험한 약물이라고 배웠다면 “절대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독자 대부분은 한번쯤 하는 것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약물오남용 조기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교육과학부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약물오남용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내실 있는 교육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